

중세국어 ‘슬잡다’에 대한 고찰

황 선 엽

- | | |
|---------------------|----------------|
| 1. 머리말 | 4. ‘슬잡-’과 모음조화 |
| 2. ‘슬잡-’과 ‘ㄱ’ 약화 현상 | 5. 맺음말 |
| 3. ‘슬잡-’과 성조현상 | 참고문헌 |

1. 머리말

음운 현상은 매우 규칙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같은 환경을 가진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음운 현상이란 현실 언어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것이어서 이상에서나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공시적 음운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하는 규칙에는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그 제약은 음운론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형태론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통사·의미론적인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실제 언어에서는 통사·의미론적인 제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있다 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반면에 형태론적인 제약이 음운 현상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고 그 폭도 넓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은 이 형태론적인 제약에 많은 관심을 쏟아 왔다. 물론 여기서 형태론적 제약이란 것이 의미하는 바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형태론적 제약은 어떤 음운 규칙이 형태소 내부에서만 적용되고 형태소 경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든지, 형태소 경계에 적용될 때에는 특정 부류의 형태소에만 적용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아주 제한적으로 어떤 형태소에만 적용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초기 구조주의에서는 각 층위 간의 참조는 층위를 혼동하는 것으로 보아

한 층위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음운현상에 있어서 형태론적인 제약이 존재함을 파악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물론 연구자는 형태론적 제약이 만능이거나 최선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형태론적 제약을 떠나서 어떠한 음운현상을 논한다는 것은 이제 와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도 이러한 바탕하에서 중세국어에 보이는 몇 가지의 음운현상이 어떠한 형태론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은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형용사 ‘슬갑-’이⁽¹⁾ 제기하는 음운론적 과제에 대해 형태론적 해답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슬갑-’은 현대국어로는 ‘슬기롭다, 지혜롭다’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15세기의 『능엄경언해』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8세기 말의 『몽어유해』까지 나타난다.⁽²⁾ 문헌자료에 보이는 ‘슬갑-’의 예는 다음과 같다.⁽³⁾

- (1) ㄱ. 네 이 사르물 보라 어리너 슬가오너(平平去平)(汝 | 觀是人호라 爲愚아 爲慧아) <능엄 4: 36ㄱ>
 ㄴ. 엇데 이 큰호 미친 사르물 다시 일흠 지호더 어리다 슬갑다(平上去) 호리 잇고(云何更名如是狂人호더 爲愚爲慧호리잇고) <능엄 4: 37ㄱ>
 ㄷ. 聰明호며 슬가오몰(平平去平) 놀와 다뭇 議論호리오(聰慧與誰論) <두시 8: 46ㄴ>

- (1) 접미사 ‘-갑-’은 그 기저형의 발음을 ‘녕’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인쇄의 편의상 ‘ㅈ’으로 하였다. ‘-갑-, -업-, -압-’ 등도 마찬가지이다.
 (2) 아마도 현대국어의 ‘살갑다’(① 집이나 세간 따위가 걸으로 보기보다는 너르다. ② 마음씨가 부드럽고 상냥하다. ③ 닿는 느낌 같은 것이 가볍고 부드럽다.)가 바로 이 중세국어의 ‘슬갑-’에서 의미변화를 거쳐 이어진 단어인 듯하다. ‘슬갑-’과 ‘살갑-’이 너무 의미차가 커 이 둘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18세기 이후 문헌에 보이는 예가 거의 없어 그 의미변화 과정을 살피기도 어렵지만 뒤의 각주 (4)에서 보이듯이 현대국어에도 ‘슬갑다’라는 모음교체형이 있고 이 단어가 ‘슬기롭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슬갑-’에서 ‘살갑-’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3) (1)에 제시한 예들 외에 “편편코 슬가오니 성 부드러우니 놉 기려 입 재닐 번호면 유해호리라(友便酸 友善柔 友便 損矣羅爲斗多)”<정속언해 15ㄱ>와 같은 예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지혜롭다’는 의미를 찾아 내기 어려워 이 예는 용례에서 제외하였다.

- ㄹ. 슬가오닐(平平去平) 求호물 許호느니(許求聰慧者) 〈두시 17: 37ㄱ〉
- ㅁ. 懵懂은 슬갑디(平上平) 아니홀 시오 〈남명 하: 58ㄱ〉
- ㅂ. 이 두 사롭 부체 ㄱ장 영노슬갑다(上去平上去)(這兩口兒夫妻好爽利) 〈번박 상: 47ㄱ〉
- ㅅ. 해 진실로 영노슬갑고(上去平平去) 스밧가올셔(咳眞箇好擻致) 〈번박 상: 15ㄱ〉
- ㅇ. 곱고 슬가와 겨지비 홀 여러 가지 그를 아더니(色美而慧 通女訓諸書) 〈선조판 삼강 열녀: 19〉

- (1') ㄱ. 슬갑다(伶俐) 〈어록해重 7ㄱ〉
- ㄴ. 슬갑다(穎悟) 〈몽어유해 상: 16ㄴ〉

(1)은 중세국어 자료에 보이는 ‘슬갑-’의 예이고 (1')은 근대국어 자료에 보이는 ‘슬갑-’의 예이다. ‘슬갑-’은 중세국어에서는 언해류 문헌에 여러 차례 보이나 근대국어에서는 어휘집 2종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잘 쓰이지 않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6세기 자료인 『박통사언해』에 보이는 (1ㄹ)과 (1ㅅ)은 명사 ‘영노’(慧)와 합성어를 이루어 ‘영노슬갑-’이란 어형으로 쓰인 예이므로 이미 16세기에도 ‘슬갑-’은 그 쓰임이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슬갑-’의 모음교체형인 ‘슬겁-’도 있었는데 『번역소학』 등의 16세기 자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9세기말까지도 문헌에 쓰이고 있으니⁽⁴⁾ ‘슬갑-’보다 후대에는 더 널리 쓰였다고 하겠다. 용례는 다음과 같다.⁽⁵⁾

- (2) ㄱ. 기르 크게 도월 사르문 도국과 슬거오미 문제오 글지조논 후엿 이리니(士之致遠는 先器識而後文藝니) 〈번소 10: 11ㄱ〉
- ㄴ. 사르미 슬거오니 어리니 이실뿐명 도논 성쇠 업스니라(人有愚智언명 道無盛衰니라) 〈야운자경 41〉

(4) 『우리말큰사전』에도 현대국어로 두 종류의 ‘슬겁다’가 동재되어 있다. ‘슬겁다1’은 앞서 주 (2)에서 살핀 ‘살갑다’와 같은 의미이고 ‘슬겁다2’는 ‘슬기롭다’라는 의미로 전남방언이라 되어 있다. 즉 ‘슬겁다’가 현재까지도 ‘슬기롭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이 외에 〈國漢會話 乾〉에 ‘슬겁다 寬實’이라 하였다가 〈國漢會話 坤〉에서는 ‘슬겁다 寬弘’으로 고친 예가 더 있으나 이것은 현대국어 ‘슬겁다1’의 의미로 이미 바뀐 것이므로 제외하였다.

- ㄷ. 母兄客卿이 민첩하고 슬겁더니 일 죽거늘(母兄客卿이 敏慧러니 母天 커늘) <어제내훈 2: 34ㄱ>
- ㄹ. 東吳 나라희 큰 이 적으니 슬거운 이 미혹호 이 당치 못함을 다 아느니 <삼역총해 6: 9ㄱ>
- ㄹ. 그 어질기 하늘 ㄹ고 그 슬겁기 귀신 ㄹ트니(其仁이 如天하고 其智 如神호 니) <십구사략 1: 10ㄴ>
- ㅂ. 슬겁기 족히 ㅂ어 간호느니를 막고(智足以拒諫이오) <십구사략 1: 36ㄴ>
- ㅅ. 아히가 너모 슬거워도 뵈습거니와 이 늙은 조곰도 지간이 업스오매 부리기 거북호외 <인어대방 2: 6ㄱ>
- ㅇ. 이 일을 슬거운 자와 통달호 자으게는 감추고 적자으게 나타너엿너니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882) 10장 21절>
- ㅈ. 이 도를 슬거운 자과 통달호 자의게는 감추고 적자의게 나타너엿나니 <예수성교전서 누가복음(1887) 10장 21절>

‘슬갑-’이란 단어는 이 글에서 논의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귀착점이기도 한 데 이것은 이 단어가 중세국어의 여러 가지 음운론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슬갑-’에 대한 기존의 견해와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국어에 동사어간과 통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갑/겹-’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기술되어 왔다. 그리하여 허웅(1966)에서는 이 접미사를 토대로 ‘슬갑-’을 가상적 어근 *슬-과 접미사 ‘-갑-’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은 15세기의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슬갑-’을 *슬-+-갑-’으로 분석할 때 당연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왜 ‘슬갑-’에서 ‘ㄱ’의 약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슬갑-’은 (1)에서 보이듯이 平上의 성조를 가지며 ‘-갑-’은 유동적 상성임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예에 보이는 접미사 ‘-갑/겹-’은 거성의 성조를 지닌다는 점도 문제이다. 즉 접미사 ‘-갑/겹-’과 ‘슬갑-’의 ‘-갑-’은 그 성조가 다른데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점은 ‘슬겁-’에서 보이듯이 頭音이 자음인 접미사 ‘-갑-’이 모음조화에 따라 ‘-겹-’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⁶⁾ 물론 이것은 ‘술잡-’에만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접미사 ‘-잡-’과 ‘-잡-’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술잡-’과 ‘술잡-’이 이러한 모음 조화에 따른 교체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술잡-’을 ‘*술-+-잡-’으로 볼 때 제기되는 것에 포함하여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⁷⁾ 자세히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2. ‘술잡-’과 ‘ㄱ’ 약화 현상

허웅(1966: 22~23)에서는 “假想的 형태소”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ㄷ잡-’과 ‘술잡-’을 어근 ‘ㄷ-’과 ‘술-’에 ‘년잡-(년-+-잡-)’ 등에서 볼 수 있는 접미사 ‘-잡-’이 붙은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하고 ‘ㄷ-’과 ‘술-’을 가상적 어근이라 하였다. 필자도 이렇게 가상적 형태소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화석처럼 남아 있는 파생어나 합성어들을 파악하는 데 이러한 방법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술-’을 가상적 어근으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⁸⁾ 가상적 어근이란 개념을 ‘즈올압-’(親), ‘놀압-’(賤) 등과 같은 단어에도 적용시키면 이들도 ‘*즈올-+-잡-’, ‘*놀-+-잡-’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인데 이들 단어는 ‘술잡-’과 달리 접미사 ‘-잡-’의 ‘ㄱ’이 어간 말음 ‘ㄷ’ 뒤에서 약화되어 있는 차이를 보인다. 즉 ‘술잡-’에서는 왜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15세기의 ‘ㄱ’ 약화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6) 보다 정확히는 두음(頭音)이 자음이며 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형태를 갖지 않는 형태소이기 때문에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를 보인다는 점이 특이한 것이라고 기술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7) 이 문제들은 이미 김성규(1994)에서 제기되고 논의가 되었다.

(8) 이현희(1987: 146~147)에서는 ‘ㄷ-’이란 어형이 16세기 말부터 등장한다는 점을 근거로 ‘ㄷ족’이 원래는 명사였으며 여기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압-’이 붙어서 ‘ㄷ잡-’이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ㄷ-’도 가상적 어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 ㄱ. 나모와(<나모+-과), 얼굴와(<얼굴+-과), 아니오(<아니+-고), 날오(<날+-고), 아니아(<아니+-가), 罰아(<罰+-가), 훈가지아(<훈가지+-가), 般若오(<般若+-고), 器具오(<器具+-고), 전초오(<전초+-고), 雄傑오(<雄傑+-고), 境界오(境界+-고)
- ㄴ. 놀오(<놀+-고), 놀어늘(<놀+-거늘), 히오(<히+-고), 히어늘(<히+-어늘)
- ㄷ. 오고(<오+-고), 니거늘(<니(녀)-+-거늘)
- (4) ㄱ. 돌기(<돌+-이), 돌기(<돌+-이)
- ㄴ. 날겨(<날+-어), 날고니(<날+-오+-니), 즐겨(<즐기+-어), 즐겁기(즐겁+-기)

(3)은 체언과 용언에서 ‘ㄱ’ 약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다름을 보여 준다. (3ㄱ)은 체언에 조사가 통합한 예들인데, 모음과 ‘ㄹ’이 발음인 경우에 ‘-과, -고, -가’ 등의 조사에서 두음 ‘ㄱ’이 약화되고 있다. (3ㄴ)은 용언의 예인데 ‘ㄹ’과 ‘ㅣ’ 뒤에서만 ‘ㄱ’이 약화되지 (3ㄷ)처럼 보통의 모음인 경우에는 ‘ㄱ’이 약화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체언과 용언에서 ‘ㄱ’ 약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체언과 용언 사이에는 또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체언에 있어 조사 ‘-과’와의 통합에서는 ‘ㄱ’ 약화가 필수적이나 의문조사 ‘-고, -가’의 경우에는 수의적이라는 점이다. ‘-가, -고’의 경우 ‘ㄱ’ 약화가 수의적이라는 데 대해 허웅(1975)에서는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ㄱ’ 약화가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날오’에서 ‘ㄹ’이 연철되지 않음을 볼 때 ‘오’는 단순한 모음이 아니라 앞에 자음을 가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아니아’와 같은 예에서 모음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또 설사 허웅(1975)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과’와 ‘-가, -고’에 있어 왜 ‘ㄱ’ 약화 현상이 차이를 보이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을 것이다.

필자는 ‘-과’와 ‘-가, -고’가 ‘ㄱ’ 약화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기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을 하나로 묶어 파악하려 한 데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체언과 통합하는 조사 중에는 선행하는 체언의 발음이 자음인가 모음인가에 따른 이형태를 가진 것들이 있다. ‘-ㄴ/은, -를/

을⁹⁾ 등이 그 예이다. 물론 이들이 모두 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형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와’와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국어에서 체언의 어간 발음이 자음인가 모음인가에 따라 조사가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을 보여 준다. 즉 ‘-와’는 모음 뒤에서 ‘ㄱ’이 약화된 형태라고 기술하기보다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와’가 선택되어 쓰이는 것이라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ㄴ’ 뒤에서도 ‘-과’가 선택되거나 ‘ㄱ’이 약화되어 ‘-와’로 실현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생각은 ‘ㄴ’ 뒤의 ‘ㄱ’ 약화 현상이 사라진 현대국어에서 보이는 체언의 곡용과 용언의 활용 양상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용언의 경우 ‘알고, 날거나, 비취거든’과 같이 ‘-고, -거나, -거든’에서 ‘ㄱ’이 약화되는 일이 없고 체언에서도 ‘너희가, 우리가’에서와 같이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와’와 ‘-과’의 경우는 ‘ㄴ’ 발음 체언일 때를 제외하고는 ‘나무와, 우리와’처럼 15세기와 같은 곡용 양상을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해 15세기 당시에는 ‘-과’ 하나였던(즉 ‘-와’는 ‘ㄱ’탈락이라는 음운 현상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었던) 공동격조사가 중세국어 말기나 근대국어 시기에 재구조화되어 ‘-과’와 ‘-와’가 모두 어휘부에 등재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경우 왜 ‘ㄴ’ 발음 체언에서는 15세기에 ‘-와’로 실현되던 것이 그대로 재구조화되지 않고 다른 자음과 같이 ‘-과’가 쓰이는 쪽으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이미 15세기부터 ‘-과’와 ‘-와’는 모두 어휘부에 있으면서 선행 체언의 발음이 자음인가 모음인가에 따라 달리 선택되는 제약만이 있었으며 ‘ㄴ’ 발음 체언에서만 ‘ㄱ’ 약화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15세기 공동격조사는 표기상으로는 ‘-과’와 ‘-와’ 둘뿐이지만 실제 그 음성형은 [kwa]와 [wa] 외에 [ɸwa]가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ㄴ’을 제외한 자음을 발음으로 가지는 체언에는 [kwa]가, ‘ㄴ’이 발음인 체언에는 [kwa]가 약화된 [ɸwa]가, 그리고 모음이 발음인 체언에는 [wa]가 통합했으나 표기상

(9) 편의상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는 제시하지 않고 양성모음형을 대표로 제시하였다.

으로는 [hwa]와 [wa]가 구분되지 않고 ‘와’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기존의 설명에 대해 가지는 약점은 체언에 통합하는 조사로서 같은 ‘ㄱ’ 약화 현상을 보이는 의문조사 ‘-가, -고’와의 공통성을 무시한다는 데에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앞서 지적했듯이 수의적 현상과 필수적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둘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어 보려 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 -고’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명이 별 무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언과 용언에서 ‘ㄱ’ 약화 조건이 다르다는 설명은 유효하나⁽¹⁰⁾ 기존에 이 유형에 넣어 다루어 왔던 ‘-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가 논점에서 다소 벗어나고 말았는데 여기서 필자가 ‘술잡-’과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4)에서 볼 수 있듯이 ‘ㄱ’ 약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¹¹⁾ 즉 15세기의 ‘ㄱ’ 약화 현상은 체언의 경우 선행체언의 발음이 ‘ㄹ’과 모음이고 조사의 두음이 ‘ㄱ’일 때, 용언의 경우는 선행 용언의 발음이 ‘ㄹ’과 ‘ㅣ’이고 어미의 두음이 ‘ㄱ’일 때라고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곡용이나 활용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이고 (5)와 같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ㄱ. 어긋으랏-(<어긋-+그랏-), 질긋으랏-(<질긋-+긋-)
 ㄱ/. 애긋-(<애+긋-), 질긋긋-(<질긋-+긋-)
 ㄴ. 덜엇(<덜+것), 들으물(<들+그물), 꼴아마괴(<꼴+가마괴), 갈외(<갈+괴)
 ㄴ/. 들그물(<들+그물), 꼴가마괴(<꼴+가마괴)
 ㄷ. 조을압-, 놀압-

(5ㄱ)은 용언끼리의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ㄱ’ 약화가 일어난 예이고, (5ㄱ/)

(10) 이 외에 ‘ㄱ’ 약화가 일어나는 조사로써 ‘곰, 곳’ 등이 있다.

(11) 이에 대한 반례로 ‘물애, 돌애’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들이 단일 형태소인지에 대한 확증이 없으므로 보류해 두고자 한다.

은 명사와 용언이 합성된 것과 용언어간끼리의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며 (5ㄴ)은 체언에서 합성어나 파생시⁽¹²⁾ ‘ㄱ’ 약화가 일어난 예, (5ㄴ')은 일어나지 않은 예이다. (5ㄷ)은 그 어근의 성격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파생어로 생각되는 예들이다. (5)에서 보이듯이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는 체언이든 용언이든 ‘ㄴ’과 ‘ㅣ’ 뒤에서의 ‘ㄱ’ 약화만 보인다. 또 일부의 경우는 그러한 환경에서도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 있어서 두 단어의 결합 정도가 ‘ㄱ’ 약화를 일으키는 데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사적 합성어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그리고 합성어보다는 파생어가, 또 자립적인 체언끼리의 합성보다는 의존적인 용언끼리의 합성이 더 결합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5)의 예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즈을압-’이나 ‘놀압-’ 같은 파생형용사에서는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를 찾기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술잡-’이 그 예외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술잡-’을 단순히 *‘술-+-잡-’으로 분석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3. ‘술잡-’과 성조현상

앞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술잡-’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平上, 모음이나 매개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平平去의 성조로 나타난다. 즉 ‘-잡-’은 유동적인 상성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잡/겹-’이 통합하여 파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다른 단어들을 통해 ‘-잡/겹-’의 성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6) ㄱ. 맛잡- ⁽¹³⁾	去去	
맛잡다	去平去	〈석상 6: 24ㄱ〉
맛잡게	去平去	〈구급방 상: 66ㄱ〉
맛가분샤	去去平去	〈월석 2: 56ㄴ〉

(12) 체언의 경우 이들이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어 같이 정리하였다.

맛가뵈시며	去去平去去	〈월석 2: 58ㄱ〉
맛가이	去平去	〈법화 2: 16ㄱ〉
ㄴ. 놀압-	平去	
놀아뵈	平去去/平去平	〈월석 21: 55ㄴ〉/〈월석 21: 199ㄴ〉 ⁽¹⁴⁾
놀아뵈니	平去平去	〈월석 21: 196ㄱ〉
놀아뵈며/놀아오며	平去平去	〈월석 17: 13ㄴ〉/〈법화 3: 56ㄱ〉
놀아이	平去去/平去平	〈법화 2: 165ㄱ〉/〈금삼 3: 55ㄱ〉

(6ㄱ)은 ‘-잡-’ 앞의 어근의 성조가 거성인 용언의 활용시 나타나는 성조형을 보인 것이고 (6ㄴ)은 어근의 성조가 평성인 예이다. (6ㄱ)의 예를 통하여 ‘-잡-’의 성조가 상성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성조가 거성인지 평성인지는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6ㄴ)을 통해서 우리는 ‘-잡-’의 성조가 거성임을 확정지을 수 있다.⁽¹⁵⁾

따라서 ‘술잡-’의 ‘-잡-’이 상성인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술잡-’의 ‘-잡-’과 같이 유동적 상성의 성조를 보이는 ‘앗잡-’과 같은 예가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7) ㄱ. 앓잡-	平上	
앗가뵈	平平去	〈석상 9: 11ㄴ〉
앗가뵈썌/앗가올썌	平平去去	〈월석 17: 34ㄴ〉/〈법화 5: 197ㄱ〉
앗잡디	平上平	〈속삼강 충신: 5ㄴ〉
ㄴ. 앓가-		
앗겨	平去	〈석상 6: 24ㄱ〉
앗기고	平去去	〈월석 1: 25ㄴ〉
앗기눅다	平去平去	〈석상 6: 26ㄱ〉

(13) ‘맛잡-’은 ‘알맞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맛-’에 ‘-잡-’이 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맛-’이 평성인 데 비해 ‘맛잡-’의 ‘맛’은 거성이란 문제가 있다. 대신에 ‘맛당호-’의 ‘맛’과 명사 ‘맛’(味)은 거성인데 이들 ‘맛’과 ‘맛잡-’의 ‘맛’이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14) 여기서는 광흥사판을 참조하였다. 무량굴판에는 ‘平平平’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북각지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15) (6ㄴ)에서 ‘놀아뵈, 놀아이’가 ‘平去去’와 ‘平去平’의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말(語末) 평거(平去)의 교체가 적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7ㄱ)은 ‘앗잡-’의 성조형인데 ‘술잡-’과 마찬가지로 ‘-잡-’의 성조형이 상성으로 나타난다. ‘앗잡-’은 ‘앗기-’에 ‘-압-’이 통합하여 파생된 단어로 분석되어 왔다. ‘앗기-’의 성조는 (7ㄴ)에서 보이듯이 平去이므로 ‘앗잡-’이 平上의 성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압-’이 상성의 성조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접미사 ‘-압-’의 성조가 상성임은 이미 김성규(1994)에서 밝혀진 바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술잡-’과 ‘앗잡-’의 ‘-잡-’이 같은 성조형을 가진다는 사실과 ‘술잡-’에서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술잡-’을 ‘술+-잡-’으로 분석해서는 안 되며 *‘술기+-압-’ 또는 *‘숭+-압-’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술잡-’에 통합한 접미사가 ‘-잡-’이 아닌 유동적 상성의 ‘-압-’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8)에서 보이는 ‘둔겁-’과 ‘년잡-’의 성조형을 고려할 때 이들 단어가 접미사 ‘-잡/접-’이 아니라 ‘-압/업-’이 통합한 예임을 알 수 있게 된다.

(8) ㄱ. 둔겁-	平上	
둔겁고	平上去	〈월석 2: 58ㄱ〉
둔겁디	平上去	〈월석 17: 52ㄴ〉
둔겁도다	平上去去	〈두시 10: 9ㄴ〉
둔거우시고	平上去平去	〈법화 2: 15ㄴ〉
둔거운	平平去	〈남명 하: 58ㄱ〉
둔거버/둔거워	平平去	〈석상 21: 39ㄴ〉
둔거이	平平去	〈법화 2: 212ㄱ〉
둔거우며	平平去去	〈목우 30ㄱ〉
둔거우미	平平去去	〈법화 4: 142ㄱ〉
ㄴ. 년잡-	平上	
년잡고	平上去	〈월석 18: 43ㄴ〉
년가바/년가와	平平去	〈월석 13: 10ㄴ〉/〈법화 2: 199ㄱ〉
년가불/년가온	平平去	〈월석 11: 129ㄱ〉/〈법화 6: 158ㄴ〉
년가불며	平平去去	〈월석 17: 44ㄱ〉
년가불니/년가오니	平平去去	〈월석 13: 9ㄴ〉/〈원각 상2-3: 36ㄱ〉
년가보물/년가오물	平平去去	〈월석 11: 129ㄱ〉/〈법화 2: 2ㄴ〉
ㄴ'. 년-	平	

널디	平去	〈두시 24: 42ㄱ〉
널고	平去	〈원자 상1-2: 105ㄱ〉
너터	平去	〈몽산 45ㄴ〉
너트며	平去去	〈석보 19: 8ㄴ〉
너토미	平去去	〈능엄 4: 100ㄴ〉
ㄴ//. 너토-	平去	
너토시고	平去平去	〈용가 4: 7ㄱ, 제20장〉

(8ㄱ)은 ‘둔겁-’, (8ㄴ)은 ‘널갑-’의 성조형을 보인 것이다. 또 (8ㄴ/)과 (8ㄴ//)은 ‘널-’과 ‘널-’의 사동사 ‘너토-’의 성조형이다. 이미 ‘둔겁-’은 이현희(1987ㄱ)에서 *‘둔기(둔+읍+이)-+-업-’으로, ‘널갑-’은 김성규(1994)에서 *‘널ㄱ-+-압-’으로 분석된 바 있다.⁽¹⁶⁾ 실제로 (8ㄴ/)에서 보이듯이 ‘널-’의 성조는 ‘평성’이기 때문에 ‘널갑-’을 ‘널-+-갑-’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널갑-’이 ‘平上’의 성조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 성조를 바탕으로 접미사 ‘-압-’이 통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단어로는 ‘갓갑-’(平上)이 있다.

그러나 접미사 ‘-압/업-’의 성조가 상성이라는 것을 토대로 한 이상의 분석은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접미사 ‘-압/업-’이 어느 환경에서나 상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접미사 ‘-압/업-’이 통합한 예임이 거의 확실한 ‘즐겁-’(<즐기-+-업-)의 성조형은 去去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압/업-’이 거성으로 나타나는 예로는 ‘답쌈-’(<답씨-+-압-), 므겁-’(<므기-+-업-)’이 있다. 이들은 모두 去去의 성조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성규(1994)에서는 원래는 去上의 성조로 둘째 음절이 유동적 상성이었던 이 단어들이 거성 뒤에서 상성이라는 성조적 자질을 잃고 울동

(16) 여기서 *‘널ㄱ-’에 왜 ‘-업-’이 아닌 ‘-압-’이 통합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널-’은 (8ㄴ/)에서 보이듯이 ‘너트며, 너터’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역시 (8ㄴ/)과 (8ㄴ//)의 ‘너토미’와 ‘너토-’ 등의 예가 있음을 필자는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의 ‘너토-’는 ‘널갑-’과 마찬가지로 파생어에서 보이는 모음조화의 예외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더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활용형보다는 파생형이 더 고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모음조화의 예외라기보다는 이기문(1972: 138)에서 언급한 [yʌ]와 [yə]가 15세기에 [yə]로 합류된 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김성규(1994)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규칙에 따르는 존재로 바뀐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습-'의 성조 변화와 동일한 것이라 한다. 필자는 이에 보태어 다음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 | |
|--------------|-------|--------------|
| (9) ㄱ. 가비야불며 | 平去平去去 | 〈월석 11: 7ㄴ〉 |
| ㄴ. 가비압도다 | 平去上平去 | 〈두시 14: 8ㄱ〉 |
| ㄷ. 가비압도다 | 平去去平去 | 〈두시 14: 11ㄱ〉 |

(9)는 '가비압-'의 성조형을 제시한 것인데 '가비압-'을 '*가비-+-압-'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9ㄱ)과 (9ㄴ)은 '-압-'이 원래의 성조인 유동적 상성을 유지한 예이고 (9ㄷ)은 거성 뒤에서 울동의 규칙을 따르는 변화를 보이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접미사 '-압-'이 거성의 성조를 지니는 어간 뒤에서는 거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서 살핀 (6ㄱ)의 '맛갑-' 역시도 '*맛기-' 내지는 '*맛기-'에 '-압-'이 통합한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맛기-'이나 '*맛기-'과 같은 가상적 어간을 설정하기보다는 명사 '맛' 등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이 문제는 접미사 '-갑-'이 통합하는 어근의 성격과 관련지어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이제 접미사 '-압-'이 통합한 단어라고 생각되는 '앗갑-, 즐겁-, 답쌈-, 므겁-; 들겁-, 년갑-, 솔갑-' 등의 분석에 있어 문제로 남는 것은 그 어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앗기-, 즐기-, 답기-, 므기-' 등의 형태가 문증이 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단어들이 파생된 것이라면 '*들기-, *년기-, *솔기-' 등을 재구하여 거기에 '-압-'이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이러한 재구를 거치지 않고 '*들기-, *년기-, *습-'에 '-압-'이 붙었다고 하는 기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말큰사전』의 「옛말과 이두」에서 '앗-'(鮮, 微)을 '앗기-'와 연관지어 놓은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앗기-'가 '앗-(<*앗기-<*앗기-)'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한다면 '즐기-, 답기-, 므기-' 등도 '*즐-, *답기-, *므-' 등의 단어에서 파생된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어느 쪽이 옳다고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미루

어 두기로 한다.

4. ‘술잡-’과 모음조화

마지막으로 모음조화는 대개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형태소나, 이형태 중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있는 문법형태소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잡/접-’이 모음조화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위의 논의 과정 중에 상당한 부분이 암시되어 있다. 즉 우리가 종래에 접미사 ‘-잡/접-’이 통합한 것으로 생각했던 여러 단어들이 실제로는 ‘-잡/접-’이 아닌 ‘-압/업-’이 통합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10) ㄱ. 명사: 놀ㅎ+-잡->놀잡-

ㄴ. 형용사: 념-+-잡/접->념잡/념접-

ㄷ. 가상적 어근: 맛+-잡->맛잡-, 돌+-접->돌접-

섬ㅅ/섬(ㅅ)+-접->섬썸/섬접/섬뻘-, 습+-접->습접-

술+-잡->술잡-, 슬+-접->슬접-

놀+-잡->놀압-, 즈울+-잡->즈울압-

(10)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접미사 ‘-잡/접-’이 통합한 단어들이라고 지적되어 오던 예들이다. 그러나 (10)에 제시된 단어 중 ‘념잡/념접-, 돌접-, 술잡/슬접-’은 앞서 밝힌 것처럼 접미사 ‘-압/업-’이 통합한 예이므로 접미사 ‘-잡/접-’이 통합한 예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남는 예는 ‘놀잡-, 맛잡-, 놀압-, 즈울압-; 섬썸/섬접/섬뻘-, 습접-’뿐이다. 여기서 필자는 기원적인 접미사는 ‘-잡-’ 하나뿐이었으며 그것은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였으리라는 가정을 세워 보고자 한다.

먼저 모음조화와 관련된 문제부터 살펴보겠다. (10)의 예 중 접미사 ‘-잡-’만을 인정했을 때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은 ‘섬썸/섬접/섬뻘-’과 ‘습접-’이다.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첫번째 방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성조형을 통해 접근해 보는 길이다. 먼저 ‘습접-’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

다. '슴거워'는 '平平去'〈남명 상: 71ㄱ〉, '슴잡다'는 '平去去'〈번노 상: 61ㄴ〉의 성조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둘을 조화시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므로 후자의 것이 16세기의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자의 형을 취하기로 한다. 그러면 '슴잡-'은 '슬잡-'과 같은 성조형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슴ㄱ/슴기-+-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섬썰/섭잡/섭썰-'의 경우 '섭거우니'는 '去平平平'〈두시 15: 17ㄴ〉, '섬썰운'은 '去去去'〈번소 10: 12ㄱ〉, '섭썰운'은 '去去平'〈소학언해 6: 111ㄴ〉 등으로 나타나는데 『두시언해』의 예는 아마도 방점이 일부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예로 보면 *섬ㄱ/섬기-+-업-'으로 분석하고 거성의 어간 뒤에서 '-업-'이 거성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섬+-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분석은 '-접-'이란 접미사가 다른 단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번째로 '슴잡-'과 '섭잡-'⁽¹⁷⁾을 *슴+-접-'과 *섬+-접-'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면서도 접미사 '-접-'이 통합한 것이라는 주장을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유추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 | |
|-------------|--------|
| (11) ㄱ. 므잡- | ㄴ. 앓잡- |
| 즐잡- | 닳잡- |
| 년잡- | 갓잡- |
| 둔잡- | 슬잡- |
| 슬잡- | |

(11ㄱ)은 어간에 접미사 '-업-'이 붙은 예이고 (9ㄴ)은 '-압-'이 붙은 예이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잡-'이나 '-접-' 등의 접미사가 통합한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년잡-, 둔잡-, 슬잡-, 갓잡-, 슬잡-' 등은 그 어근이 문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근이 이미 소멸되었을 만큼 이 파생어들이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그 어근이 공시적으로 잔존하였더라도 매우 빈도가 낮은 단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화자들은 이 단어의 내

(17) 이하 '섭잡-'으로 '섬썰/섭잡/섭썰-'을 대표하기로 한다.

적 구성에 대한 언어적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화자들이 ‘-갑/접-’이란 접미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유추로 원래는 ‘*슴갑-, *섭갑-’이었던 단어를 ‘슴접-, 섭접-’으로 바꾸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는 달리 ‘*슴+-갑-, *섭+-갑-’에서 파생된 ‘*슴갑-, *섭갑-’이 그 어근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게 됨에 따라 파생어라는 인식이 없어져 단일 형태소처럼 인식되어 모음조화에 따르게 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녘갑-’이 ‘녘접-’이 되는 현상과도 통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갑/접-’은 기원적으로는 모음조화에 따르는 이형태를 가진 접미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갑/접-’ 이외에도 자음으로 시작하면서 모음조화에 따른다고 설명되어 온 형태들이 있다. ‘-갑/접-’과 마찬가지로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인 ‘-뵐/보/브/브-’⁽¹⁸⁾와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개/계’가 그것이다.⁽¹⁹⁾

먼저 ‘-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브-’는 동사를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접미사인데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뒤에만 통합한다. 한편 받침이 없는 용언일 경우에는 ‘-브-’⁽²⁰⁾ 통합한다. 이것은 ‘-브-’와 ‘-브-’의 관계가 ‘-ㄴ, -ㄹ, -ㄱ’과 ‘-은, -을, -음’의 관계와 유사함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이미 허웅(1975)에서 지적된 바 있다. 즉 ‘-브/브-’의 ‘으, 으’는 매개모음과 유사한 것이다. 이것은 국어의 음절구조 제약을 고려할 때 너무도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다. 즉 ‘놀라-’에 ‘-브-’가 통합하면 ‘놀랍-’으로 음성실현될 수 있으나 ‘끓-’에 ‘-브-’가 통합하면 음성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개모음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인 매개모음과 달리

(18) ‘-뵐/보-’와 ‘-보/브-’는 모음조화에 따른 교체형이고 ‘-뵐/보-’와 ‘-브/브-’는 선행 형용사의 말음이 유성음인가 아닌가에 따른 교체형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 ‘-뵐/보-’는 ‘ㄴ, ㄹ, ㄱ, ㅇ, ㅅ’으로 끝나는 용언과 통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ㅅ’ 아래에 통합한 예만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들 네 가지 이형태는 별다른 구별이 필요치 않은 한 ‘-브-’로 대표할 것이다.

(19) 보조사 ‘-도’의 경우, ‘-두’라는 이형태를 가지기도 하나 이는 모음조화에 따른 이형태라기보다는 ‘ㅎ야’가 ‘ㅎ여’로, 의도형어미 ‘-으라’가 ‘-으러’로, 연결어미 ‘-고’가 ‘-구’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어미의 음성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고져’의 경우는 ‘-고자’를 거쳐 ‘-고자’가 되었는데 이는 ‘*~고#지+-어’와 같은 통사구성이 하나의 어미로 문법범주화하면서 모음조화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ㅂ-’의 앞이 아닌 뒤에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이다. 왜 이 경우 일반적인 매개모음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는 하지만 ‘-브-’의 ‘으’가 매개모음과 유사한 존재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브-’가 모음조화에 따르는 까닭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개/게’는 달리 설명할 뵈족한 방도가 없는데 굳이 궁색한 설명이라도 하자면 단일형태소화에 따라 모음조화가 적용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 (12) 가. 돕게<두치 19: 45ㄱ>, 덩게<번박 상: 30ㄴ>, 집게<사성통해 하: 81ㄴ>,
 나. 놀개<월석 1: 14ㄴ>/놀애<월석 10: 78ㄱ>, 받개<훈몽자회 중: 8ㄴ>, 노리
 개<법화 1: 101ㄴ>
 다. 베틀개<월석 12: 31ㄱ>

(12가)은 음성모음 뒤에 ‘-게’가 통합한 예이고,⁽²¹⁾ (12나)은 양성모음 뒤에 ‘-개’가 통합한 예이다. (12다)은 ‘베-’에 ‘-개’가 통합한 것인데 ‘베-’가 원래는 [pyʌy]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게/개’가 통합한 단어는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점⁽²²⁾을 고려할 때 ‘-개/게’는 생산적인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²³⁾ 따라서 이들은 단일형태소화되어 모음조화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원래 기원적인 것은 ‘-개’인가 ‘-게’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것이 기원적인 형

(20) 형태음소적으로는 ‘-브-’이라 해야겠지만 ‘-갑-, -압/업-’ 등과 마찬가지로 표기의 편의상 ‘ㅂ’으로 처리하였다.

(21) ‘집게’와 같이 중성모음인 ‘이’가 있는 예도 있으나 체언에서는 ‘이’가 양성적으로, 용언에서는 음성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22) ‘올에’와 ‘둘에’에 대해서도 접미사 ‘-게’가 통합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전자는 의미상 ‘우르-’에 ‘-에’가 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후자는 ‘둘-’(‘둘-’의 모음교체형)에 ‘-게’가 붙은 것으로 보든 ‘두르-’에 ‘-에’가 붙은 것으로 보든 ‘에’의 성조가 ‘평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둘에’는 흔히 ‘平上’으로 나타나고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이는 ‘둘에’가 대부분 주어 자리에 쓰이기 때문에 오해된 것이다. 단독형이나 다른 격조사가 통합할 때는 ‘平平’으로 실현된다. 또한 ‘노리개’의 경우도 *‘노리-’란 형태는 보이지 않고 ‘놀-, 놀이-’만 나타나기 때문에 ‘-개’가 붙은 파생어인지에 대해 의심해 볼 수도 있다.

(23) ‘-개/게’는 오히려 현대로 오면서 더 생산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태라고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다음으로 ‘-잡-’이 통합하는 어근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종래의 견해에 따르면 ‘-잡/접-’은 명사나 형용사 또는 가상적인 어근에 붙어 형용사를 파생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명사나 형용사에 붙는 접미사가 존재한다는 기술은 문법 기술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실제 접미사는 ‘-잡-’밖에 없으며 그것이 통합한 단어는 ‘놀잡-, 맛잡-, 놀압-, 즈올압-’만이 남는다고 하면 ‘-잡-’은 ‘놀, 맛, *놀, * 즈올’과 같은 명사에만 통합하여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기술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이것이 ‘-잡-’에 대한 보다 타당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5. 맺 음 말

이상에서 ‘술잡-’이 제기하는 음운론적인 문제 세 가지를 검토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 단어의 어원과 관련이 되는 형태론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술잡-’에서 ‘ㄱ’이 약화하지 않는 것은 이 단어가 *술-+-잡-’이 아닌 *숭/술기-+-압-’과 같은 내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15세기 국어에서 ‘ㄱ’ 약화의 조건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공동격조사의 경우 [kwa], [fwa], [wa]의 세 가지 음성형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술잡-’의 성조가 ‘平上’인 것도 이 단어가 *숭/술기-+-압-’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성조를 지니는 단어는 ‘들잡-, 년잡-, 갓잡-, 앓잡-’ 등이 있다.

셋째 ‘술잡-’과 ‘술접-’을 고려할 때 접미사 ‘-잡-’이 ‘-접-’과 같이 모음조화에 따르는 이형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도 ‘술잡-’을 *술-+-잡-’과 같이 잘못 분석한 데서 나온 결과이다. 나아가 접미사 ‘-잡/접-’이 모음조화에 따라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즉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에 ‘-접-’은 없으며 ‘-잡-’은 명사와 통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인 것이다. 또한 기존에 모음조화에 따르는 접미사로 보았던 ‘-닐/보

/브/브-'의 경우도 형태론적으로 다시 고려해야 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필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나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증을 기다려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참 고 문 헌

- 기주연(1994), 『근대국어조어론연구(1)』, 태학사.
- 김성규(1994), 「중세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성규(1996), 「'드틀'과 '듣글'의 공존」, 『이기문선생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김완진(1971),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제약」, 『학술원논문집』 10.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 11.
- 김완진(1975), 「음운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 증가에 대하여」, 『국어학』 3.
- 김완진(1977), 『중세국어성조의 연구』, 탐출판사.
- 김완진(1985), 「모음조화의 예외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 6.
- 이기문(1972/1985), 『국어음운사연구』, 탐출판사.
- 이현희(1987ㄱ), 「중세국어 '듣겹-'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 이현희(1987ㄴ), 「국어의 어중·어말 'ㄱ'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고찰」, 『한신논문집』 4.
- 이현희(1991), 「중세국어의 합성어와 음운론적인 정보」, 『석정이승욱선생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허 응(1966), 「서기 15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한 조어법의 서술방법과 몇 가지 문제점」, 『동아문화』 6.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